논어 8편 태백 1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如有周公之才之美，使驕且吝，其餘不足觀也已！」

독음 · 자왈 여유주공지재지미 사교차린 기여부족관야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주공 같은 재능이 있어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볼 만하지 않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如 같을 여 여 / 有 있을 유

周 두루 주 주 / 公 공변될 공 공 / 之 갈 지 / 才 재주 재 재

美 아름다울 미 미 / 使 하여금 사 사 / 驕 교만할 교 교 / 且 또 차 차

吝 아낄 린 린 / 其 그 기 / 餘 남을 여 여 / 不 아닐 불

足 발 족 족 / 觀 볼 관 관 / 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